

순창 구림 화암마을 숲 체험관 준공

주민 등 200여명 참석... 테마로·숲속교실 등 둘러봐

순창 구림면 화암마을이 숲 체험관 준공식을 갖고, 순창의 대표 관광마을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지난 28일 순창 구림면 순창향 관광농원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 순창군 의원 및 지역 사회단체장,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암마을 종합정비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화암마을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2015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숲 체험을 테마로 마을 소득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3개년 총 6억 4천 6백만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화암마을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숲 체험을 테마로, 숲 체험관과 숲속교

실, 숲 체험탐방로 조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반 조성 및 선진지 견학과 마을 단위 컨설팅사업으로 지역민의 역량강화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이번 사업은 최근 도시민의 전원생활, 여가 및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관광트렌드와도 잘 맞아 떨어져 순창군을 대표하는 관광마을로 변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구림 화암마을은 인근에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국립공원과 추령 장승촌, 훈풍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즐비해 있어 관광 거점마을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이날 준공식을 위해 참석한 마을 주민

들은 "항상 산을 바라보면 살아가는 숲에 큰 감흥이 없었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만들고 보니 숲이 새롭게 보인다"고 마을 발전이 기대된다며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준공식에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축사에서 "오늘 준공식은 구림 화암마을의 발전을 위한 첫 시작이다"며 "농촌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림 화암마을은 지난 2012년 전북도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선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 매년 각종 사업에 선정되면서 마을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시, 서울시와 상생협력 공동발전 추진

김동규 부시장 단장으로 11명 추진단 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서울시와 두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점점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문제와 심화되는 지역간 격차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5월 서울시의 상생협력 제의에 따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달 28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김동규 부시장(사진)을 단장으로 11명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생협력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남원시는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인 다목적 복합공간 활용 ▲청소년 문화교류 ▲예술공연, 시립미술관 교류 ▲찾아가는 혁신리

드 ▲상생상회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사람·정보·물자의 3개 분야 11개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이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으로 남원시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서울소재 학교, 복지시설 등에 직거래 공급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공공기숙사를 방학 중 게스트 하우스로 제공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울 탐방시(대학입시, 학원특강) 하루 2만원으로 숙소 문제를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시 청년들에게 지리산



체험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연환경 인프라를 활용해 창작·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지리산 청년 캠프 이어 프로그램을, 서울 신중년을 대상으로 남원의 다양한 문화관광, 농촌 환경 등 여행을 통해 경험해 보고 연계 가능한 일자리를 연결함으로써 남원시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신중년 패스파인더' 시범사업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김동규 남원부시장은 "남원시와 서울시의 상생협력 사업과 양극화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10일까지 여름방학 결식 아동 급식지원

남원시는 오는 7월 10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와 기존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급식지원 대상자 신규 발굴과 기존대상자 재관정을 통해 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를 통해 끼니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저소득 가구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현재 남원시 대상

자는 1,200여명이 해당되며, 1,006명의 아동에게 바우처 카드로 가맹점 188개소에서 물품구입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아동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등이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병해충 공동방제 앞장

벼·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 개최

임실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해충 공동방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벼 일반방제와 고추 공동방제 협의회, 벼농사 항공방제 협의회를 읍면 농업인 대표 및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에서는 임실군 벼 및 고추 공동방제용 대표약제를 선정하여 방제효과가 높고 농가가 선호하는 약제를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은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벼농사에 무인헬기를 이용한 종합방제를 통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병해충 방제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대외 경쟁력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벼농사에 항공방제를 5년째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농약의 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방제 전용 약제를 선정했으며, 50m 이내에 타

작물이 있을 경우 항공방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약회사별로 추천된 약제가 검증된 약제를 비교 검토하여 방제에 효과적인 약제가 선정됐다.

약제는 업체별 비교견적 입찰을 통해 희망농가에 지원된다. 항공방제회사와 연계하여 항공방제가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추재배 전 면적을 대상으로 탄저병 방제를 위한 전용약제도 공급한다. 병해충 피해가 적은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방제협의회에서 약제를 선정하여 7월 중순에 공급한다.

올해 기상불순 등으로 벼에는 도열병, 깨씨무늬병, 흑명나방 등 고추에는 탄저병, 총채벌레, 진딧물 등 주요 병해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방제를 시행함으로써 안정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농작물 병해충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병해충 발생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적기에 공동방제기간을 설정, 전문가가 동시에 병해충 방제를 진행토록 하는 등 방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남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 온라인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50개 지역에 1,472가구 중 전북지역은 202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일정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입주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예비)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LH홈페이지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원활한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구비서류와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을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동참

남원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접수결과 지난 28일 기준 694농가에서 405ha를 신청해 목표면적 676ha 대비 59.9%(전국평균 58.6%)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49.7%와 비교할 때 10.2%가 높아진 실적이며, 지원금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확인을 받은 후 12월중 지급한다.

이 같은 결과는 금년 휴경 논 신규지원과 품목별 지원 단가상승(조사료 30만원/ha ↑, 두류 45만원/ha ↑) 및 그동안 남원시가 쌀 생산조정단협의회, 식량안업종합계획, 쌀 전업농 간담회, 한옥우회 협회 등 1만여농가에 대한 15회 이상 개별농가 문지를 발송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전년도 3ha이상 재배 720여 농가에 대한 개별 논 타작물 재배 미참여시 수매물량 미배정 서한문 발송 결과 신청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타작물 2ha미만 참여농가는 ha당 65포대 내외, 2ha이상 참여농가는 ha당 75포대 내외를 별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터미널 관광안내소 새단장

8월 초 본격 운영

순창군이 대중교통 관문인 터미널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외부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군은 현재 강천산 국립공원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읍 중심지에 안내소 부재로 외부관광객들에게 순창을 알리는 데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조성한 것이다.

특히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민선 7기 3대 비전중 하나로 내세운 순창군은 이번 관광 안내소 설치가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정확한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안내소가 들어설 터미널이 순창읍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전주나 광주, 남원 등 도시민이 방문하는 데 지리적 이점도 충분히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적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면적 33㎡로 큰 공간은 아니지만,

지리적인 면과 내부 공간 구성도를 심분 활용해 트랜드한 도시민들의 취향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군은 심혈을 기울여 조성할 방침이다.

관광 안내소는 기존 터미널내 일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관광 해설사를 비롯, 관광두레 PD도 상주시켜 관광 안내에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최근 시설 내부공사가 착공에 들어가 8월초에는 새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안내소 내부는 관광객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카페형식으로 꾸며져 휴식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관광 안내소는 순창을 처음 찾는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인 만큼 순창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